



2020년 9월 6일(제998호) 연중 제2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용서는 인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빛내주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어들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내가 다시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행동 가운데 하나이기에, 우리는 ‘용서’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과 잣대를 통해 어떠한 조건을 걸고서 용서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등 생각만 하여도 기분이 상하고 치가 떨릴 정도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실천하기 힘든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끔 이끄는 힘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의탁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체험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말씀을 통해 ‘용서’라는 행동이 분명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용서의 행동이 소중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할 만큼 가치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 우리 가족, 우리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하루를 함께 지내며,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다음과 같은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말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이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웃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누구한테도 ‘당신을 용서해요.’라는 말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성녀 마더 테레사,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중에서)



유윤상(토마스 베켓) 신부
중령 103위 상인(37사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권호송

예제 33,7-9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로마 13,8-10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18,15-20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한신에 이기타



성인명: 한신에 이기타 (韓新愛 Agatha)

신분: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한신애(韓新愛) 아가타는 충청도 보령에서 양반의 서녀(庶女)로 태어났으며, 장성한 뒤에 한양에 살던 조례산의 후처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다가 1795년~1796년경 여회장 강완숙 골룸바의 전교 덕택으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 아가타는, 전처의 딸과 함께 열심히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런 다음 강 골룸바의 집을 오가면서 정복혜 칸디다 등과 함께 교회 일을 도왔고, 자신의 종이었던 소명을 강 골룸바의 집으로 보내 교리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800년 여름,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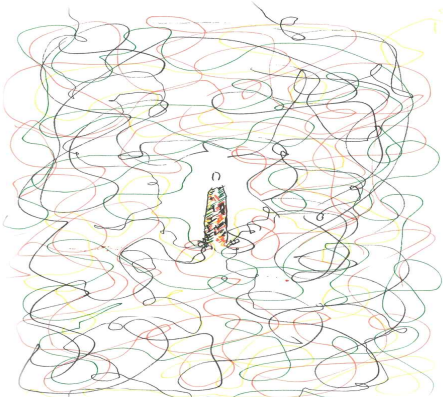
한 아가타는 그동안 다른 가족과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을 천주교에 입교시킬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열심히 하면서 교리에 밝은 남자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먼저 종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그녀는 김연이 율리아나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강완숙 골룸바와 함께 여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정 칸디다가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거두어 오자, 한 아가타는 이를 자신의 집 공간에 숨겨 두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녀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 한신애 아가타는 형조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당하였지만,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강완숙 골룸바, 김연이 율리아나 등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나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그 무질서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언제까지
벉을, 어둠을	살 수 있으려는지.
혼잡하게	
세상에 뿌리며	
살고 있지.	

상화이야기

에제키엘의 환영



라피엘로, 1518년경 제작
피플 위 유희, 40x30cm / 피티궁(Palazzo Pitti), 피렌체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저마다 두 날개는 서로 닿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어디로든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햇불의 모습 같았고, 그 불은 광채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그리고 생물들은 번개가 치는 모습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다.(에제 1,4-14)

정작 이 환시를 보는 에제키엘은 그림의 왼쪽 아래에 티끌만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익회 회원들 위함 미사 - 연중 제23주일: 공군본부 나팔님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립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1,19)